

사회

광주 일반계고 학업성취도 상위 20개 중

사립 18개·공립 2개 '私高公低'

(사고공저)

男 문성고·女 대광여고 가장 높아

광주 고교 2학년 가운데 남고는 문성고, 여고는 대광여고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2010년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드러난 광주지역 일반계고 45곳의 학업 성취도다.

문성고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에서 수율이 96.7%로 1위, 영어는 91.5%로 2위에 올랐다. 국어는 92.3%(10위)로 3과목을 합산한 평균 93.5%로 광주지역 고교 중 1위를 차지했다.

대광여고는 국어 98.3%(1위), 영어 91.5%(3위), 수학 90.6%(12위)로 문성고와는 종합평균에서 불과 0.1% 포인트 차로 전체 2위에 올랐다.

송덕고는 국어 92.9%(7위), 영어 95.5%(5위), 수학 95.5%(2위) 등 92%로 뒤를 이었다.

전체 순위에서 4위는 대동고, 동신여고(5위), 광덕고(7위), 동성고(8위), 석산고(9위), 대성여고(10위) 순

이다. 과목별 평가에서는 국어는 여고(女高)가, 수학은 남고(男高)가 우세했다.

국어는 대광여고가 98.3%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상일여고(97.4%), 동신여고(96%), 문정여고(94.9%), 광주여고(93.6%) 순으로 여고의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수학은 문성고와 송덕고, 대동고(95.2%), 광덕고(94.8%), 고려고(93.6%)가 1위~5위를 차지하는 등 남고의 성적이 높았다.

영어는 상일여고가 91.9%로 1위, 문성고(91.5%) 2위, 대광여고가 91.4%로 3위, 동성고(90.7%)가 4위를 차지했다.

비평준화 고교를 제외한 일반계고에서 첨단고(60.7%)가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될 광주고(67.2%)가 그 다음을, 운남고(67.7%), 전남대사대부고(68.3%), 송원고(69.1%), 장덕고(71.3%), 전남고(71.5%), 상무고(71.6%)가 차례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들 학교는 전체 평균 점수에서도 상위권과는 20~30% 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다. 광주지역의 보통이상 학력 평균 비율은 국어 84.6%, 수학 83%, 영어 75.1%로 집계됐으며 대부분 공립고는 평균 이하였다.

특히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평균 한 결과 사립고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성적 상위(10위) 학교 중 상일여고(6위)를 제외한 9곳은 모두 사립고가 차지했다. 6위를 차지한 상일여고는 올해 시험을 치른 학생이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어서 주목된다.

공립고 가운데 상일여고 외에 지난해 첫 신입생을 받은 문정여고가 19위에 올랐을 뿐 나머지 공립고는 모두 20위권 밖으로 밀렸다. 광주지역 일반계고 45곳 중 공립은 14곳, 사립은 31곳이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을 추천식으로 뽑기 때문에 학교간 성적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데다 학부모들이 사립을 선호하는 경향도 반영돼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립 학교간 학력격차 해소를

■광주지역 보통이상 학력 비율 상위 20개고교

순위	학교	과목 평균			
		국	영	수	평균
1	문성고	92.3	91.5	96.7	93.5
2	대광여고	98.3	91.4	90.6	93.4
3	송덕고	92.9	87.6	95.5	92.0
4	대동고	93.2	87.3	95.2	91.9
5	동신여고	96.0	86.8	91.1	91.3
6	상일여고	97.4	91.9	84.1	91.1
7	광덕고	89.4	86.9	94.8	90.3
8	동성고	89.0	89.0	92.4	90.1
9	석산고	91.0	83.9	93.5	89.4
10	대성여고	92.3	87.3	86.3	88.6
11	금호고	86.5	84.0	91.8	87.4
12	동아여고	89.9	85.2	86.9	87.3
13	고려고	86.5	81.5	93.6	87.2
14	설원여고	90.9	82.9	87.4	87.0
15	중앙여고	91.4	77.4	91.4	86.7
16	수원여고	91.1	82.4	84.7	86.0
17	설계고	85.8	80.8	92.4	85.9
18	송원고	92.4	80.8	84.4	85.8
19	문정여고	94.9	79.5	82.3	85.5
20	경신고	91.1	80.8	83.5	85.1

위한 학력신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황일봉 전 남구청장 구속

채용 대가 기부 지시 혐의

공무원 채용 대가로 복지단체 등에 수천 만원의 돈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황일봉(52) 전 광주 남구청장이 구속됐다.

광주동부경찰은 1일 황 전 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 채용을 앞선해 준 대가로 인사 청탁자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박모(64)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광주지역 모 복지단체 3곳에 수표와 현금을 전달한 박씨의 딸(43)과 사촌동생(63)을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황 전 청장 재임 시절인 2006년 9월 2일 밤 10시께 광주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김모(67)씨로부터 아들(31)의 채용 청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 7000만원을 전달받아 이 가운데 3500만원을 행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나머지 절반은 황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사찰과 복지단체 등에 팔, 사촌 동생을 통해 나눠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황 전 청장은 선진 묘 이상 문제로 알게 된 풍수지리 전문가인 박씨와 친분을 쌓아왔으며, 박씨의 부탁을 받은 황 전 청장은 이듬해 1월 김씨의 아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이 복지단체 등에 기탁됐지만, 황 전 청장이 액수와 기부할 단체, 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칭했고 예



황일봉 전 광주 남구청장이 1일 오전 광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수감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초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전 청장은 경찰에서 "김씨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사실이나 내가 박씨에게 돈을 받거나 기부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나원침 (8185) 김종두



"연평도 포격 남한 정부 책임"

현역 육군 장교 인터넷에 글

현역 육군 장교가 연평도 포격 책임이 남한에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과 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다음 아고라에서 "연평도 포격은 남한 정부가 도발하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발견했다. 두 문장으로 이뤄진 이 게시물은 경찰의 요청으로 삭제됐다.

경찰은 추적 결과 한 장교가 강원도의 육군 모 부대에서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 헌병대에 사건을 넘겼다. 헌병대는 이 장교를 상대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 중 학력평가 안본다

광주는 학교장 재량 맡겨

전남과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전국 6개 시도 교육청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중학생 대상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시험 실시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1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들 5개 지역은 중학교 1~2학년 대상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른 11개 시도만 시험을 치른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에 시험 실시 여부를 맡기되, 시험성적의 기밀과 사생활, 성적 공개 금지, 시험 불참자 수업안만 마련 등 조건을 달았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뇌물 받고 4억 공사 몰아쥐

해남 화산농협 조합장 입건

해남경찰은 1일 해남 화산농협 오모(55) 조합장과 건축업자 민모(6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조합장은 화산농협에서 발주한 4억5000만원 규모의 농산물 저장창고 건축을 하면서 지난해 2월 건축업자 민씨로부터 2회에 걸쳐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를 몰아준 혐의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에이즈를 바로 알자" 세계 에이즈의 날(12월1일)을 맞아 1일 오후 광주시 광천동 U스퀘어앞에서 광주시와 5개 구청 보건 담당 공무원, 광주에이즈예방협의회 회원들이 '에이즈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산불감시? 감시원 감시?

인권위 "사전 설명 없는 위치추적기 착용 인권침해"

산불감시원에게 위치추적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산림청장과 담당 지자체장에 대해 보안 조치를 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산림청과 전주 완

전주 완산구청 산불감시원이던 이모(63)씨와 성남 분당구청 산불감시원인 허모(51)씨는 '산불감시원에게 위치추적기를 보급·착용토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올해 상반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산불감시원들에게 자신의 위치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수집·이용되는지와 위치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헌법상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수 채용 금품' 전문대 총장 구속

광주경찰 수사2계는 1일 교수 채용 대가로 수 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향음 접대를 받은 광주 모 전문대학 총장 A(62)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6월 장애인 학교를 운영하는 B(여·48)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B씨를 사회복지경

영과 교수로 채용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008년 5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C(47)씨로부터 피부미용과 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무료 주름살 제거 수술과 골프 및 향음 접대 등 총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산타가 되어주세요"

사랑의 물레산타 광주본부 1000명 모집

"아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할 산타를 모집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에게 물레산타가 선물과 희망의 편지를 전해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2010 사랑의 물레산타 대작전'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 펼쳐진다.

이를 위해 '사랑의 물레산타 광주본부'는 오는 10일까지 1000여 명의 산타를 모집하며, 나이와 성별 제한은 없다. 특히 올해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할 '가족산타'도 10가주 모집한다.

산타들은 11일 발생연습과 울릉·풍선만들기 등 산타학교에서 2~3차례 기본교육을 받으며, 18일 열매를 탄 채 대규모 산타퍼레이드도 열 예정이다. 또 24일 밤 대식을 가진 후 광주 지역 350여 명의 아이들과 50명의 독거노인 집을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등을 함께 꾸밀 계획이다. 대상 아이들과 독거노인은 지역 아동센터, 학교사회복지사, 시민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산타 접수와 대상자 추천은 '사랑의 물레산타' 광주본부 홈페이지(hopenanum.cyworld.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백화점 돌며 명품 의류 22차례 훔쳐

○광주서부경찰은 1일 백화점 등 명품 의류매장에서 고급 의류만을 상습적으로 훔친 김모(여·43)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S쇼핑센터 의류매장에서 종업원 이모(여·38)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걸이에 진열된 시가 40만원 상당의 외투 한 벌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광주 시내 백화점과 쇼핑센터를 돌아다니면서 모두 22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

○김씨는 훔친 의류나 신발이 몸에 맞지 않으면 다른 매장에서 이를 교환해 사용했는데, 경찰에서 "쇼핑을 좋아했는데 최근 남편의 사업형편이 좋지 않아 옷을 제대로 사입지 못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김희호기자 kimho@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2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